

여드름 외용제에 관한 한의학 문헌 고찰

이원용 · 김동희*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병리학교실

A Korean Medicine Literature Review on Acne External Medicines

Won Yung Lee, Dong Hee Kim*

Department of Pathology, College of Korean Medicine, Daejeon University

As social interest in acne treatment has grown, various external preparations have been developed and studied. So, we investigated the external prescription which can treat acne in medical classics, then reviewed and divided it by dynasty. The data for analysis of Herbal formula was taken from 'medicine Dictionary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prescriptions(中医方剂大辞典)'. 31 external medicines were searched, 3 were before song(宋) dynasty, 11 were Song(宋) dynasty, 11 were Yuan(元) dynasty, 7 were Ming(明) dynasty and 7 were Qing(清) dynasty. The recipe and usage were only making them pill(丸) and paste(膏) using grinded medicinal herbs, then rubbing to face. As the age developed, unique manufacturing process(i.e fermentation method), and usage(i.e time-based usage, herbal medicine extracts for wash) were proposed. The external application with oriental medicine for acne used with *Angelicae Gahuricae Radix*(n=12), *Bletillae Rhizoma*(n=8), *Syzygii Flos*, *Saposhnikoviae Radix*(n=7) and so on. In particular, *Bletillae Rhizoma* was searched with high frequency in this study, but it was not included or studied in patent composi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provide basic data for future experiments and clinical studies.

keywords : Acne, External medicine, External prescription, Medical classics

서 론

여드름은 과도한 피지의 분비로 인해 각질형성세포의 이각화증 혹은 과각화증으로 발생 및 염증변화가 나타나는 만성 피부질환으로, 면포, 구진, 농포, 낭종, 결절, 반흔 등의 증상이 얼굴이나 목, 등, 어깨 가슴에 나타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¹⁾. 여드름의 병인은 남성호르몬에 의한 피지 분비의 증가, 비정상적으로 증가된 모낭 입구의 과각화와 모공 폐쇄, *Propionibacterium acnes*(*P.acnes*)의 증식, 염증 유발이 주요 관련인자로 제시되어 있으며, 그 외에도 피부장벽기능의 이상과 기타 유전, 환경적 요인 등 다양한 요소가 여드름의 발생에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다²⁾.

여드름은 경미한 질환으로 인식되지만, 환자의 정서적 측면과 대인관계, 사회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심한 여드름 환자는 정서적 측면과 대인관계에 있어 우울, 불안, 자아존중감 뿐만 아니라 삶의 질과 연관되는 문제를 나타내고 있다³⁾. 또한 여드름은 주로 사춘기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2015년 국내에서 내원하는 환자 중 20대가 43.1%, 30대가 24.2%를 차지하는 등 여드름은 단순히 특정 연령대에 한정되는 질환이 아님을 알 수 있다⁴⁾.

현대사회에 이르러 미용적인 측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증

함에 따라 여드름 치료에 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여드름의 치료법에는 retinoids, 항생제, benzoyl peroxide 등을 이용한 도포제, 항생제, isotretinoin, 호르몬 치료제 등의 경구 투여 및 압출요법, 광선치료, 병변 내 스테로이드 주입 등을 사용하나 피부자극, 내성균주 및 접촉성 피부염 등의 부작용 등의 문제가 나타나며⁵⁾, 이로 인해 천연물을 이용한 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의학에서 여드름은 『黃帝內經』⁶⁾에서 瘡癩으로 불리기 시작하였으며, '瘡癩, 瘡, 胞瘡, 面疱, 肺風瘡, 肺風粉刺, 青春痘' 등 症狀이나 歷出시 양상, 原因에 따른 病名과 호발하는 시기에 따른 病名 등 다양한 이름으로 지칭되었다. 대표적인 病因·病機로는 辛辣厚味로 인해 積熱이 생기거나 飲酒로 인한 內濕熱, 脾胃氣虛한 상태에서 肺經의 外邪侵入으로 氣血과 熱의 壅滯를 유발함으로써 肌膚에 발생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여드름을 치료하기 위하여 "外病內治"의 기본 원칙하에 내치법과 함께 다양한 외치법을 사용하여 왔다. 宋代 이전의 서적에서는 대부분 本病에 대한 정의, 양상과 병인병기에 대해서만 기술하였으나, 《太平聖惠方》에서 面上生瘡, 面胞, 粉刺로 나누어 다양한 劑型을 사용하여 여드름에 외용제를 사용하는 등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용법의 외용제를 사용하였다²⁾.

* Corresponding author

Dong-Hee Kim, Department of pathology, College of Korean Medicine, Daejeon University, Daejeon 300-716, Republic of Korea

·E-mail : dhkim@dju.kr ·Tel : +82-42-280-2623

·Received : 2017/03/16 ·Revised : 2016/04/20 ·Accepted : 2017/05/10

© The Society of Pathology in Korean Medicine, The Physiological Society of Korean Medicine

pISSN 1738-7698 eISSN 2288-2529 http://dx.doi.org/10.15188/kjopp.2017.06.31.3.153

Available online at https://kmpath.jams.or.kr

여드름 치료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한의학적 치료방법들이 많이 개발 및 연구되고 있는데, 유 등⁷⁾은 여드름에 사용되는 침구 치료에 대하여 문헌적인 고찰을 시행하였으며, 전 임상 연구로는 최 등⁸⁾이 RAW 264.7 cell에 대하여 세포독성 및 항염증 효과를 연구하였고, 한 등⁹⁾은 국내산 봉독의 여드름 유발균 및 피부상재균 증식의 억제효과를 발표하였다. 또한 두 등¹⁰⁾은 5% 어성초 추출물의 외용요법이 여드름에 미치는 임상적 연구를 시행하였으며, 정 등¹¹⁾도 한약 성분 함유 가능성 연구에 대한 임상연구를 시행하였다. 반면, 전 임상연구에 앞서 약물치료에 대한 한의학 문헌 연구는 보고된 바가 없으며, 이에 저자는 한의학 서적 중 8만개 이상의 가장 많은 처방을 수록한 『中醫方劑大辭典』¹²⁾에서 여드름에 해당하는 병증을 주치로 갖는 처방을 조사하여 시대별로 나누어 고찰한 결과 약간의 지견을 얻어 실험, 임상연구의 기초 연구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문헌연구 대상 선정

여드름에 사용된 외용제 처방을 탐색하기 위하여 『中醫方劑大辭典』의 색인에서 여드름 및 여드름 관련병증이 주치에 속한 처방 223개를 검색하였다. 이후 清代 이후의 처방과 1차 문헌에서 확인할 수 없는 처방을 제외하여 133개 처방을 확인하였다. 이 중 여드름과 관련이 없는 처방을 제외하기 위하여 주치를 검색하고 대조하여 살펴보았는데, 『원색피부과학』¹⁾, 『中医外科学』¹³⁾의 여드름에 관한 용어를 참조하여 主治가 粉刺 혹은 皰와 관련 없는 처방을 제외하였다.

2. 외용제 및 내용제의 구별

여드름에 사용되는 처방 중 외용제로 사용되는 처방을 검색하기 위해 약물 형태를 ‘膏’로 사용하는 것이나 처방의 사용방법이 피부에 도포하는 것으로 설명된 것 (ex. 용법 중 ‘貼’, ‘洗面’)을 검색하였다. 또한 內服으로 사용되는 논문을 검색한 결과 內服으로만 사용되는 처방 14개와 용법이 상세하지 않은 처방 3개가 검색되었으며, 외용제로 사용한 처방 31개가 검색되었다(Fig.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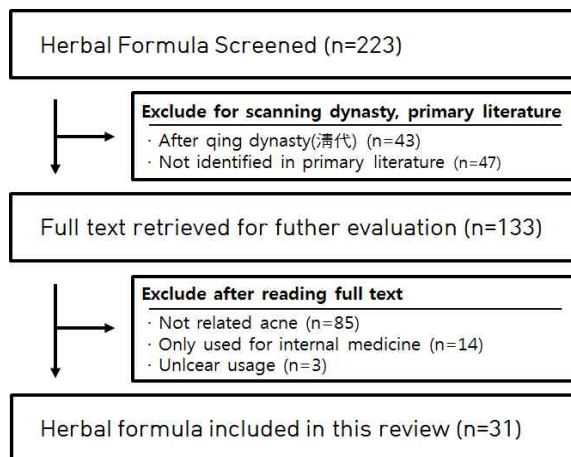


Fig. 1. Flow chart of acne external prescription.

3. 本草名의 통일

여드름 외용제로 사용되는 처방들의 효율적인 분석을 위하여 유사한 本草들은 그 本草名을 통일하였다. 本草名이 『本草學』¹⁴⁾의 異名 부분에 수록된 경우, 炮製법, 크기, 색깔을 표현하는 형용사와 붙어있는 경우(예: 煨石膏, 大棗肉, 皂莢末) 『本草學』을 기준으로 本草名을 통일하였다. 『本草學』에 本草名이 언급되지 않은 경우는 『中華本草』¹⁵⁾의 本草名을 기준으로 통일하였으며, 『中華本草』에는 수록되지 않았으나 baidu(<http://www.baidu.com/>)에 異名이 수록된 경우에는 baidu를 기준으로 통일하였다.

결 과

여드름에 외용제로 사용된 처방의 구성약물을 빈도순으로 조사하였으며, 여드름에 사용하는 처방들을 시대별로 나누어 처방의 사용법, 본초에 대하여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정리하였다.

1. 처방 검색 결과

최종 검색 후 21개의 문헌에서 총 31개의 처방이 검색되었으며 그 내용은 Table 1과 같다(Table 1). 宋代 이전엔 3편, 宋代엔 11편, 元代엔 2편, 明代엔 7편, 清代엔 7편이 검색되었다. 여드름에 외용제로 사용되는 처방에 포함되어 있는 본초를 빈용 순으로 살펴보면 白芷(12), 白芨(8), 丁香, 防風(이상 7회), 瓜蒌, 甘松, 白芨, 杏仁, 白附子, 輕粉(이상 6회), 皂角刺, 綠豆(이상 5회), 硫黃, 蘘本, 細辛, 升麻, 楮實子, 糯米, 白殭蠶(이상 4회), 密陀僧, 荊芥, 菊花, 零陵香, 三奈, 砂仁, 麝香(이상 3회), 皂莢, 山奈, 獨活, 蔓荊子, 牽牛子, 羌活, 大棗, 藿香, 川芎, 白朮, 白茯苓, 梔子, 硃砂, 滑石, 雄黃, 白石脂, 牛黃(이상 2회)가 2회 이상 출현하였다(Table 2).

Table 1. Medical Books and Prescription Name of Acnd External Prescription

Medical books	Prescription
古今醫鑒, 女科百問, 洞天奧旨, 蘭室秘藏, 醫府禁方, 劉涓子遺方, 證類本草, 普濟方, 聖濟總錄, 世醫得效方, 楊氏家藏方, 癩醫大全, 外科大成, 外科方外奇方, 外臺秘要, 衛生寶鑑, 醫部全錄, 醫宗金鑒, 醫學心悟, 增補內經拾遺	改容丸, 大風子膏, 鸕鷀尿膏, 硫黃膏, 芫絲汁塗方, 滅癩丹, 礬石散, 防風散, 白芨膏, 白芷膏, 肥皂方, 肥皂丸, 石粟膏, 洗面藥, 洗風散, 如玉散, 五倍子膏, 玉容散, 玉容西施散, 赤膏, 顛倒散, 澡豆, 清涼散, 杏仁膏, 杏黃散, 瑩肌如玉散, 紅膏, 萱草膏

Table 2. Frequency in Use of Herbal Medicine

Frequency	Herbal medicine	Mineral medicine	Animal medicine
12	白芷		
8	白芨		
7	丁香, 防風		
6	瓜蒌, 甘松, 杏仁, 白芨, 白附子	輕粉	
5	皂角刺, 綠豆		
4	蘘本, 細辛, 升麻, 楮實子, 糯米	硫黃	白殭蠶
3	密陀僧, 荊芥, 菊花, 零陵香, 三奈, 砂仁		麝香
2	皂莢, 山奈, 獨活, 蔓荊子, 牽牛子, 羌活, 大棗, 藿香, 川芎, 白朮, 白茯苓, 梔子	朱砂, 滑石, 雄黃, 白石脂	牛黃

2. 宋代 이전 외용제의 검색결과

宋代 이전의 외용제는 총 3개가 검색되었는데, 『劉涓子鬼遺方』¹⁶⁾에서 1개, 『外臺秘要』¹⁷⁾에서 2개가 검색되었다. 처방 구성 및 용법은 Table 3과 같다(Table 3).

Table 3. Results for External Medicine Before Song(宋) Dynasty

Source	Name	Composition	Usage
劉涓子鬼遺方	鷓鴣屎膏	鷓鴣屎 一升	敷(塗)
外臺秘要	赤膏	朱砂 四分 麝香 二分 牛黃 半分 水銀 四分 雄黃 三分	敷(塗)
外臺秘要	澡豆	白芷 七兩 川芎 五兩 皂莢 四兩 玉竹 白朮 各五兩 蔓荊子 二合 冬瓜子 五兩 梔子 三合 瓜蒌 三合 華豆 三升 豬腦 一合 桃仁 一升 鷹屎 三枚 商陸 三兩	澡(洗)

3. 宋代 외용제의 검색결과

宋代에는 11개의 외용제가 검색되었는데, 『證類本草』¹⁸⁾에서 1개, 『聖濟總錄』¹⁹⁾에서 7개, 『楊氏家藏方』²⁰⁾에서 1개, 『女科百問』²¹⁾에서 1개, 『蘭室秘藏』²²⁾에서 1개가 검색되었다. 처방의 구성약물 및 용법은 Table 4와 같다(Table 4).

Table 4. Results for External Medicine in Song(宋) Dynasty

Source	Name	Composition	Usage
證類本草	杏仁膏	杏仁 雞子白	敷(塗)
聖濟總錄	白麩膏	白麩 白石脂 杏仁 各半兩	敷(塗)
聖濟總錄	礬石散	礬石 白石脂 各一分 白麩 三分 杏仁 半兩	敷(塗)
聖濟總錄	萱草膏	萱草花 七兩 蜂蜜 三兩	敷(塗)
聖濟總錄	石粟膏	石灰 二兩 粟米 二合	澡(洗)
聖濟總錄	白芷膏	白芷 蕪荑 木蘭皮 細辛 藁本 白附子 各三分 川芎 半兩 防風 半兩 丁香 零陵香 松花 麝香 各一分 熊脂 三斤	敷(塗)
聖濟總錄	紅膏	朱砂 一兩 麝香 半兩 牛黃 半分 雄黃 三分	敷(塗)
聖濟總錄	菟絲汁塗方	菟絲子 一握	敷(塗)
楊氏家藏方	五倍子膏	漏蘆 二兩 五倍子 半兩 黃柏 一兩	敷(塗)
女科百問	洗風散	芫蔚子 蠶沙 赤小豆 牽牛子 白芷 藁本 白殭蠶 白附子 草烏頭 白麩 蔓荊子 各等分	澡(洗)
蘭室秘藏	洗面藥	皂角刺 三斤 升麻 八兩 楮實子 五兩 白芷 一兩 甘松 七錢 砂仁 丁香 三奈子 各五分 綠豆 八合 糯米 一升二合	澡(洗)

4. 元代 외용제의 검색결과

元代에는 2개의 외용제가 검색되었는데, 『衛生寶鑑』²³⁾에서 1개, 『世醫得效方』²⁴⁾에서 1개가 검색되었다. 처방의 구성약물 및 용법은 Table 5와 같다(Table 5).

Table 5. Results for external medicine in Yuan(元) dynasty

Source	Name	Composition	Usage
衛生寶鑑	瑩肌如玉散	楮實 五兩 白芷 一兩 升麻 半斤 甘松 七錢 白丁香 砂仁 各半兩 糯米 一升二合 三賴子 三錢 綠豆 五兩 皂角刺 三斤	敷(塗)
世醫得效方	硫黃膏	硫黃 白芷 瓜蒌 輕粉 各半錢 芫青 七個 全蝎 一個 蟬退 五個	敷(塗)

5. 明代 외용제의 검색결과

明代에는 7개의 외용제가 검색되었는데, 『普濟方』²⁵⁾에서 2개, 『古今醫鑒』²⁶⁾에서 2개, 『魯府禁方』²⁷⁾에서 1개, 『增補內經拾遺』²⁸⁾에서 1개, 『外科正宗』²⁹⁾에서 1개가 검색되었다. 처방의 구성약물 및

용법은 Table 6과 같다(Table 6).

Table 6. Results for External Medicine in Ming(明) Dynasty

Source	Name	Composition	Usage
普濟方	防風散	防風 輕粉 荊芥 各二分 密陀僧 乳香 各一錢	敷(塗)
普濟方	肥皂丸	南星 芒硝 各半兩 巴豆 七枚 白梅肉 一兩	澡(洗)
古今醫鑒	玉容散	皂角刺 三斤 升麻 八兩 楮實子 五兩 甘松 五錢 山奈 三錢 砂仁 五錢 瓜蒌 一兩 白芷 一兩 白芨 一兩 糯米 一升 丁香 五錢 綠豆 一兩	澡(洗)
古今醫鑒	如玉散	白芷 藿香 皂莢 各一錢 甘松 三奈 水澤 丁香 各一錢 瓜蒌 白茯苓 各一錢 半 杏仁 細辛 密陀僧 各一錢 樟腦 五分 白芨 少許	敷(塗)
魯府禁方	肥皂方	皂角刺 一斤十二兩 真排草 一兩五錢 升麻 四兩 白芨 五錢 楮實子 二兩半 白芷 五錢 砂仁 五錢 糯米 半升 綠豆 五錢 瓜蒌 五錢 丁香 二錢半 杏仁 一兩五錢 豬胰子 五個 菊花 五錢 大棗 一兩五錢 零陵香 五錢 龍腦 藿香 各三錢 木香 三兩 宮粉 一兩半 梅桂 七錢 桂花 一兩半	澡(洗)
增補內經拾遺	大風子膏	大風子 十個 木鱉子 十個 硫黃 三分 輕粉 三分	擦
外科正宗	玉容丸	甘松 山奈 細辛 白芷 白麩 白芨 防風 荊芥 白殭蠶 山梔 藁本 天麻 羌活 獨活 密陀僧 白礬 檀香 川椒 菊花 各一錢 大棗 七枚	澡(洗)

6. 清代 외용제의 검색결과

清代에는 7개의 처방이 검색되었는데, 『外科大成』³⁰⁾에서 1개, 『洞天奧旨』³¹⁾에서 1개, 『醫部全錄』³²⁾에서 1개, 『醫學心悟』³³⁾에서 1개, 『醫宗金鑑』³⁴⁾에서 1개, 『瘍醫大全』³⁵⁾에서 1개, 『外科方外奇方』³⁶⁾에서 1개가 검색되었다. 처방의 구성약물 및 용법은 Table 7과 같다.

Table 7. Results for External Medicine in Qing(清) Dynasty

Source	Name	Composition	Usage
外科大成	玉容散	白芷 白朮 白芨 白茯苓 白扁豆 細辛 白殭蠶 蓮蕊 牽牛 白麩 白鴿糞 團粉 丁香 白附子 麝香 各等分 防風 荊芥 羌活 獨活 各減半	澡(洗)
洞天奧旨	杏黃散	硫黃 五錢 杏仁 二錢 輕粉 一錢 綠豆 二兩 白附子 白芨 白麩 白殭蠶 白芷 瓜蒌 各一兩 甘松 三奈 茅香 各五錢 零陵香 防風 藁本 各二錢 皂角刺 一挺	敷(塗)
醫部全錄	玉容西施散	貝母 白附子 防風 白芷 菊花 滑石 各五錢	澡(洗)
醫學心悟	改容丸	大黃 硫黃 各等分	敷(塗)
醫宗金鑑	顛倒散	輕粉 白附子 黃芩 白芷 防風 各等分	澡(洗)
瘍醫大全	滅癩丹	輕粉 杭粉 蛤粉 各一錢 青黛 五分 石膏 三錢 六一散(滑石, 甘草) 三錢	敷(塗)
外科方外奇方	清涼散		

고찰

한의학에서 여드름은 『黃帝內經』⁶⁾에서 痤癩으로 기술이 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증상이나 압출시 양상에 의해 ‘痤癩, 痤, 面疱, 粉刺, 面皰, 面熱, 炮疔, 面皰’, 원인에 의해 ‘肺風瘡, 肺風粉刺’, 호발하는 시기에 의해 ‘青春痘’ 등으로 불려왔다²⁾. 『醫宗金鑑』³⁴⁾에서는 肺風粉刺에 대해 “얼굴과 코에 매번 발생하는데, 부스럼 같은 것이 잘게 일어나고, 그 형태는 黍屑과 같으며, 그 색은 붉고 腫痛

이 있으며, 압출하면 흰 粉汁이 나오는데 오래되면 白屑을 이룬다”라 하여 오늘날 여드름과 가장 유사하게 표현하고 있다.

여드름의 병리기전은 辛熱厚味나 飲酒로 인해 內濕熱, 脾胃에 氣虛한 상태가 되면 肺經의 風濕熱이나 寒, 火邪 등 外邪의 침범을 용이하게 하여 氣血, 熱의 응체를 유발하여 肌肉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최근엔 이 외에도 肺熱血熱, 腸胃濕熱, 脾胃不健으로 인한 水濕內停 등을 주된 병인·병기로 인식하고 있다²⁾. 여드름은 문헌에 따라 변증 분류와 제시된 증상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크게 風熱型, 濕熱型, 痰瘀型, 衝任不調型, 脾失健運型, 氣血鬱滯型 등으로 변증 분류하여 치료하고 있다³⁷⁾.

여드름의 일차 원인은 피지선의 증대 및 활성화로 인한 피지의 과다분비와 각화과정의 이상으로 인한 각화세포의 이각화증 혹은 과각화증이며, 이로 인해 피지와 keratin, cell debris와 함께 모낭 내에 저류하여 면포가 형성된다. 여기에 *P. acnes* 등의 세균이 증식하여 염증성 병변으로 진행되면 구진, 농포, 결절 등을 만들며, 치유된 후에도 작은 소와에서 깊은 구나 비후성 반흔, 혹은 켈로이드에 이르는 다양한 형태의 영구적인 반흔을 형성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피부장벽기능의 이상으로 경피수분손실이 증가하여 모낭 표피세포의 과증식 및 과각화증을 일으키는 것이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기타 여드름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는 잘못된 세안 및 화장, 음주, 과도한 스트레스와 수면부족, 손으로 여드름을 만지거나 짜는 것 등이 제시되고 있다¹⁾.

현재 국소 도포제 중 확실한 피지 분비 억제 효과가 입증된 것은 없기 때문에 피지 분비의 조절, 각화과정 이상의 교정, *P. acnes*로 대표되는 세균에 대한 억제 기능을 목표로 치료를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각질세포의 이상각화 교정에 효과가 있는 Retinoids, *P. acnes*로 대표되는 세균들에 대한 억제작용을 하는 clindamycin, erythromycin 등 항생제, benzoic acid와 hydrogen peroxide로 분해되어 강력한 살균효과, benzoyl peroxide, 낭종 등 염증성 병변이나 켈로이드성 여드름에 스테로이드 주입 등이 여드름에 사용되고 있다⁵⁾. 이들 치료는 피부자극 및 염증반응을 유발하거나, 내성균주의 출현 위험으로 인해 대체약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여드름에 관한 연구로는 최 등⁹⁾이 RAW 264.7 cell에 대해 顛倒散의 항염증 및 항균효과를 시험한 결과, *P. acnes*에 대한 항균효능은 없으나 항염증 효과가 있으므로 염증 상태의 여드름 치료에 응용될 수 있을 것이라 추론하였다. 두 등¹¹⁾은 실험군에게 1일 2회 어성초 수용액을 15-20분간 도포한 결과, 대조군에 의하여 비염증성 여드름과 염증성 여드름이 유의하게 감소한 것을 보고하였다. 정 등¹²⁾은 여드름 환자 30명을 대상으로 한약 함유 기능성 비누에 대한 pilot study를 진행하였는데, 한국인 여드름 중증도 시스템(KAGS) 수치를 낮춘 반면 증상 악화를 호소하며 탈락한 1인과 건조감을 호소한 3인이 사례를 통해 적용 범위를 지성 피부의 여드름으로 제한하거나 보습성을 강화하는 성분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하였다. 유 등⁸⁾은 여드름의 침구치료에 대해 한의학문헌과 pubmed, NDSL, KISS를 검색하여 얻은 10편의 문헌을 고찰한 결과 大腸經, 胃經, 膀胱經, 脾經이 많이 사용되었으며, 合曲, 曲池, 足三里, 三陰交, 肺俞 등 다용된 혈자리를 보고하였다.

또한 박 등³⁸⁾의 연구에 따르면 국내 한의학 논문을 대상으로 체계적 문헌고찰을 시행한 결과, 증례보고의 경우 내복약 복합 추출물만을 사용하였으며, 3편의 무작위배정 비교임상시험(RCT)에서는 외용제로 樺皮, 苦蔘, 魚腥草의 단일 생약 추출물을 사용하였고, 3편의 전후연구에서는 외용제로 顛倒散, 산성수, 한약 추출물 함유 비누를 사용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김 등³⁹⁾은 1996년부터 2014년 까지 공개된 항염증 및 여드름 치료 효과를 적시한 특허자료 72종의 구성 약물을 분석하였는데, 이를 다빈도 순으로 보면 黃芩(13회), 魚腥草·黃柏(각 8회), 黃連(7회), 甘草·苦蔘(6회), 白芷(5회), 蘆薈·當歸·紅蔘·川芎·仙鶴草·連翹·芍藥·金銀花·肉桂(각 3회), 槐花·三白草·茶葉·知母·蒼耳子·天門冬·梔子·麥門冬·五味子·黃芪·枸杞子·大黃·馬齒莧·茄子·熟地黃·蘇葉·防風·升麻·皂莢·大薊(각 2회) 순이라 보고하였으며, 이들을 처방내의 역할에 의거하여 君臣佐使에 따라 분류한 결과 黃芩, 黃柏, 黃連, 苦蔘, 蘆薈, 連翹, 金銀花 등 清熱解毒하는 약물들이 君藥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하였다. 반면 여드름 외용제에 대한 한의학문헌을 고찰한 논문은 없었는데, 이에 저자는 한의학문헌에서 여드름에 외용제를 주치료 갖는 처방들을 찾아 시대별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먼저 宋代 이전의 외용제는 3개가 검색되었는데, 鷓鴣屎, 鷹屎와 같은 동물의 배설물이나 豬腦와 같은 동물의 부산물과 같이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을 사용한 처방들이 검색되었다. 『劉涓子遺方』¹⁶⁾에 수록된 鷓鴣屎膏는 鷓鴣屎 단일 약물을 돼지기름과 섞어서 얼굴에 바르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외대비요의 赤膏는 부인의 粉滓에 사용되었는데, 朱砂, 水銀, 雄黃 등 금속제 약재들을 다량으로 사용하였다. 澡豆는 일종의 비누로서, 14종의 약재를 사용하여 丸으로 만든 후 사용하였다(Table 3).

宋代에서는 11종의 외용제가 검색되었는데, 이에 따라 외용제에 사용되는 약물뿐만 아니라 제법, 용법 역시 다양해졌다. 예를 들면, 杏仁膏, 白蘞膏, 礬石散 등의 처방은 약물을 가루낸 후 鷓鴣屎와 섞어서 저녁에 바른 후 아침(明旦)에 淸酒나 井華水에 씻어내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白芷膏의 제조법은 매우 특이한데, “사향과 熊脂를 제외한 약물들을 그릇에 넣고 술을 넣고 하룻밤을 재운다. 이후 熊脂를 넣고 섞은 뒤 文火에서 끓이면 白芷黃色膏이 만들어진다. 이를 고른 천으로 거른 뒤 麝香을 넣고 고루 흔든 뒤 蠶盒에 넣는다. 잘때마다 澡豆와 따뜻한 물로 씻은 뒤 몸에 바른다.”라 하여 숙성을 시킨 뒤 膏를 만들어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외용으로 사용된 처방 중 보료를 제외한 단일약물을 사용한 처방은 杏仁을 사용한 杏仁膏, 萱草花를 사용한 萱草膏, 菟絲苗를 사용한 菟絲汁塗方이 있었으며, 이를 제외한 처방들은 복합약물제였다. 이중 『聖濟總錄』¹⁹⁾의 紅膏는 외대비요에서 언급한 赤膏와 유사하게 朱砂, 雄黃 등 금속제 약재들이 다량 함유되어 있었다(Table 4).

元代에는 두 가지 외용제가 검색되었는데, 瑩肌如玉散는 消腫排膿하는 皂角刺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처방으로, 약물들을 분말로 만들어 糯米, 綠豆, 皂角末과 섞어 바르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硫黃膏는 처음으로 硫黃을 외용제로 사용한 처방인데, 여러 약물들을 갈아서 麻油, 黃蠟과 섞어 볶은 후 약액을 취해 얼굴에 바르는 방

법을 사용하였다(Table 5).

明代에 외용제로 사용된 처방 중 4개는 가루로 만든 후 乳汁, 蜂蜜이나 金酒와 섞어서 바르는 방법을 사용하였고, 1개는 膏로 만들어서 시간에 상관없이 환처에 비비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2개는 丸로 만들어서 씻을 때 사용하였다. 이 중 防風散은 輕粉을 포함한 5가지 약재로 구성된 처방인데, 약재들을 가루로 만든 후 저녁에 얼굴에 바른 후, 아침에 荊芥湯으로 씻어내는 방법을 사용하였다(Table 6).

清代에 외용제로 사용된 처방 중 4개는 가루로 만들거나 丸로 만들어서 세면할 때 사용하였으며, 3개는 가루로 만들어 저녁에 萝卜汁, 絲瓜汁이나 물과 함께 바르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Table 7). 즉 외용제의 사용 방법에는 宋代 이전부터 膏劑, 丸劑 등 기본적인 제형이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외에도 宋代의 발효법을 이용한 白芷膏, 元代의 여러 약물들을 麻油, 黃蠟와 섞어 열을 가하여 이용하는 硫黃膏, 明代의 저녁에 약재들을 바른 후 아침에 荊芥湯으로 씻어내는 防風散, 清代의 약재를 가루낸 후 萝卜汁, 絲瓜汁 등 다양한 보조수단과 함께 이용하는 방법 등 시대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여드름에 외용제로 사용되는 처방에 포함되어 있는 본초를 빈용 순으로 살펴보면 白芷(12회), 白芨(8회), 丁香, 防風(이상 7회), 瓜蒌, 甘松, 白藜, 杏仁, 白附子, 輕粉(이상 6회), 皂角刺, 綠豆(이상 5회), 硫黃, 藜蘆, 細辛, 升麻, 楮實子, 糯米, 白僵蠶(이상 4회), 密陀僧, 荊芥, 菊花, 零陵香, 三奈, 砂仁, 麝香(이상 3회), 皂莢, 山奈, 獨活, 蔓荊子, 牽牛子, 羌活, 大棗, 藿香, 川芎, 白朮, 白茯苓, 梔子, 硃砂, 滑石, 雄黃, 白石脂, 牛黃(이상 2회)이 2회 이상 출현하였다(Table 1).

이중 白芷는 가장 다빈도로 출현한 약물로서, 문헌으로 출간된 연구결과는 없지만 여드름 치료효과를 적시한 특허자료에 5회 포함되어 현대에도 다빈도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白芨의 경우 본 연구에서 다용되었으나, 현대 연구에서는 여드름에 외용제로 사용한 경우가 없었다. 이 외에도 發散風寒의 효능을 갖는 防風, 荊芥, 藜蘆, 細辛 및 發散風熱의 효능을 갖는 升麻, 菊花 등의 약물이 다빈도로 검색되었으며, 化痰止咳平喘의 효능을 갖는 瓜蒌, 杏仁, 白附子 역시 다용되었다. 또한 輕粉, 硫黃, 硃砂, 滑石 등의 광물성 약재가 빈도가 높았으며, 임상연구에서 大黃과 硫黃을 사용한 顛倒散의 연구 등 광석류 약물을 이용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특허자료에 다빈도 구성약물 중 광물성 약재는 없었다. 여드름 치료 효과를 적시한 특허자료 중 黃芩, 黃連, 黃柏은 각각 13회, 8회, 7회에 사용한 것에 비하여 본 연구에서는 黃芩과 黃柏은 1회씩 사용되었으며, 清熱藥 중에서는 白藜이 다용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31개 처방의 구성약재들은 현대에도 대부분 사용되는 약재이지만, 식물성 약재인 三奈, 山奈와 광물성 약재인 輕粉, 硫黃, 白石脂는 현재 한국에서 통용되지 않는 약재이며, 그 중 三奈와 白石脂는 한국약전에는 수록되지 않은 약재이다.

결 론

여드름에 외용제로 사용되는 한의문헌을 조사하여 宋代 이전

엔 3편, 宋代엔 11편, 元代엔 2편, 明代엔 7편, 清代엔 7편의 처방을 검색하였다. 宋代 이전엔 가루를 내어 섞어서 膏劑, 丸劑를 만드는 기본적인 방법이 사용되었으나,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발효법과 같은 독특한 제조과정이 있었으며, 시간에 따라 사용하거나 萝卜汁, 絲瓜汁과 같은 다양한 보조수단을 같이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총 31개의 처방에 포함되어 있는 본초를 빈용 순으로 살펴보면 白芷(12회), 白芨(8회), 丁香, 防風(이상 7회), 瓜蒌, 甘松, 白藜, 杏仁, 白附子, 輕粉(이상 6회), 皂角刺, 綠豆(이상 5회), 硫黃, 藜蘆, 細辛, 升麻, 楮實子, 糯米, 白僵蠶(이상 4회), 密陀僧, 荊芥, 菊花, 零陵香, 三奈, 砂仁, 麝香(이상 3회), 皂莢, 山奈, 獨活, 蔓荊子, 牽牛子, 羌活, 大棗, 藿香, 川芎, 白朮, 白茯苓, 梔子, 硃砂, 滑石, 雄黃, 白石脂, 牛黃(이상 2회)이 2회 이상 출현하였다. 이 중 白芨을 비롯한 藜蘆, 菊花, 瓜蒌, 杏仁, 白附子 등은 높은 출현빈도에도 불구하고 실험연구나 특허자료에 사용된 경우가 없거나 미비하여 향후 비임상단계의 효능적 평가를 통해서 임상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대전대학교 난치성 면역질환의 동서생명의학연구 지역혁신센터의 지원에 의한 것입니다.

References

1. Roh SS. Color atlas of clinical dermatology. 2nd ed. Seoul: Kyobo Printing & Books; 2014.
2. Joo HA, Bae HJ, Hwang CY. A literature Study about Comparison of Eastern-Western Medicine on the Acne. The Journal of Korean Medicine Ophthalmology and Otolaryngology and Dermatology. 2012;25(2):1-9.
3. Ahn BK, Lee SJ, Namkoong K, Chung YL, Lee SH. Quality of life of acne patients. Korean Journal of Dermatology. 2005 Jan 1;43(1):6-14.
4.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Information: Disease sub-classification [cited 2016 Dec 16]. Available from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vwcd=MT_ZTITLE&parentId=D#SubCont
5. Suh DH. Pharmacologic Treatment of Acne. Journal of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2010 Jul 1;53(7):623-9.
6. Huangdineijing suwen. 3rd ed. Seoul: Yulgang publisher; 2010. 76 p.
7. Youh EJ, Choi YS, Kim JI, Ko HH. The Study on the Acupuncture Therapy of Acne. The Journal of Korean Acupuncture & Moxibustion Society. 2006;23(4):123-34.
8. Choi KH, Seo HS. The effects of Jeondo-san on anti-inflammation and anti-Propionibacterium acnes. The Journal of Korean Medicine Ophthalmology and

- Otolaryngology and Dermatology. 2007;20(2):89-101.
9. Han SM, Lee KG, Yeo JH, Kim WT, Park KK. Antimicrobial Property of honeybee (*Apis mellifera* L.) venom against *Propionibacterium acnes* and Aerobic Skin Flora. Korean Journal of Pharmacognosy. 2009;40(3):173-7.
 10. Du IS, Seo YJ, Hong WW, Oh HC, Park MC, Kim NK. Clinical Study on the Effect of External Treatment of 5% Herba *Houttuyniae* Extract Solution on the Acne. Journal of Physiology & Pathology in Korean Medicine. 2004;18(2):612-20.
 11. Jeong JC, Roh JJ, Choi MS, Kim DI. A Pilot Test on the Effects of Improvement on Acne Skin-Using Functional Soap, Containing Medicinal Herbs. The Journal of Oriental Obstetrics and Gynecology. 2009;22(1):182-90.
 12. Peng HR. Zhongyifangji dacidian. 1st ed. Beijing: Renminweishengchubanshe; 2005.
 13. Tan XH, He QH. Zhongyi Waikexue. 2nd ed. Beijing: Renminweisheng publisher; 2011
 14. Nationwide College of Korean Oriental Medicine Joint Instruction Compilation Committee. Bonchohak. 1st ed. Seoul:Yeongrimsa. 2010.
 15. Song LR. Zhonghuabencao. 1st ed. shanghai:Shanghaike xuejishu publisher;1999
 16. Liu JZ. Liujuanzi Guiyifang-Waikejingyiheji. 1st ed. Shanxi: Shanxikexuejishu publisher; 2013. 13 p.
 17. Wang T. Waitaimiyao. 1st ed. Beijing: Renminweisheng publisher; 1996. 881 p.
 18. Tang ZH. Zhengleibencao. 1st ed. Beijing: Zhongguoyiya okeji publisher; 2011. p. 598-628.
 19. Li JR. Beijiqianjinyaofang. 1st ed. Beijing: Renminweisheng publisher; 1997. p. 746-7.
 20. Yang T. Yangshijiazangfang. 1st ed. Beijing: Renminweisheng publisher; 1988. 394 p.
 21. Qi ZF. Nvkebaiwen. 1st ed. Beijing: Zhongguoyiyaokeji publisher; 2012. 37 p.
 22. Li DY. Lanshimizang. 1st ed. Beijing: Renminweisheng publisher; 2005. 132 p.
 23. Luo TY. Weishengbaojian. 1st ed. Beijing: Zhongguozhongyiyao publisher; 2007. 264 p.
 24. Wei YL. Shiyidexiaofang. 1st ed. Shanghai: Shanghaike xuejishu publisher; 1997. 486 p.
 25. Zhou DW, Teng S, Liu C. Pujifang-2 Shenxing. 1st ed. Seoul: Hansungsa; 1981. p. 167-9.
 26. Wu Q. Gujinyijian. 1st ed. Beijing: Zhongguozhongyao publisher; 1997. 263 p.
 27. Gong TX. Lufujinfang. 1st ed. Beijing: Zhongguozhongyiyao publisher; 1992. p. 119-43.
 28. Luo LJ. Zengbuniejingshiyi. 1st ed. Beijing: Xueyuan publisher; 2011. p. 156-7.
 29. Chen SG. Waikezhengzong. 1st ed. Beijing: Renminweisheng publisher; 1983. p. 255-6.
 30. Qi K. Waikedacheng. 1st ed. Taibei: Wenguangtushuyou xiangongsi; 1986. 218 p.
 31. Chen SD. Dongtianaozhi. 1st ed. Beijing: Zhongguoyiyao keji publisher; 2011. 173 p.
 32. Chen ML. Gujintushujicheng-Yibuquanlu. 1st ed. Seoul: Deasungmunwhasa; 1986. 223 p.
 33. Cheng GP. Yixuexinwu. 1st ed. Seoul: Jengdam publisher; 1999. 507, 677 p.
 34. Wu Q. Yizongjinjian. 1st ed. Seoul: Jisan publisher; 2008. p. 419-21.
 35. Gu SC. Yangyidaquan. 1st ed. Beijing: Zhongguozhongyiyao publisher; 1996. p. 447-78
 36. Shanghaizhongyixueyuan Zhongyiwenzhan Association. Lidaizhongyizhenbenjicheng. 1st ed. Shanghai: Shanghaisanlianshudian; 1990. 22 p.
 37. Jeong WY, Hong EG, Shin JH, Kim YB, Nam HJ, Kim KS, et al. A Study on the Major Symptoms by Each Pattern of Acne Vulgaris. The Journal of Korean Medicine Ophthalmology and Otolaryngology and Dermatology. 2014;27(4):76-86.
 38. Park HR. Clinical Studies of Herbal Treatment for Acne in Korea: A Systematic Review. Daejeon: Daejeon University; 2015.
 39. Kim DI, Kim SH, Ahn IS, Choi MS. Analysis of Patent Information for the Development of Korea Traditional Herbal Formulation for Acne and that of Functional Cosmetics. The Journal of Oriental Obstetrics and Gynecology. 2014;27(3):104-15.